

KEB Hana Market Weekly

---

# 달러/원·엔·유로환율·금리·주식

---

자금시장영업섹션

2022. 10. 4

서 정훈 연구위원

[seojh@hanafn.com](mailto:seojh@hanafn.com)

02.729.0195

# 주간 달러/원 동향(9/26-9/30) 및 전망

◀서플라이-USDSP-체결> 2022/09/19 종:1,386.20 ▼1.80 -0.13% 시:1,385.00 고:1,386.70 저:1,38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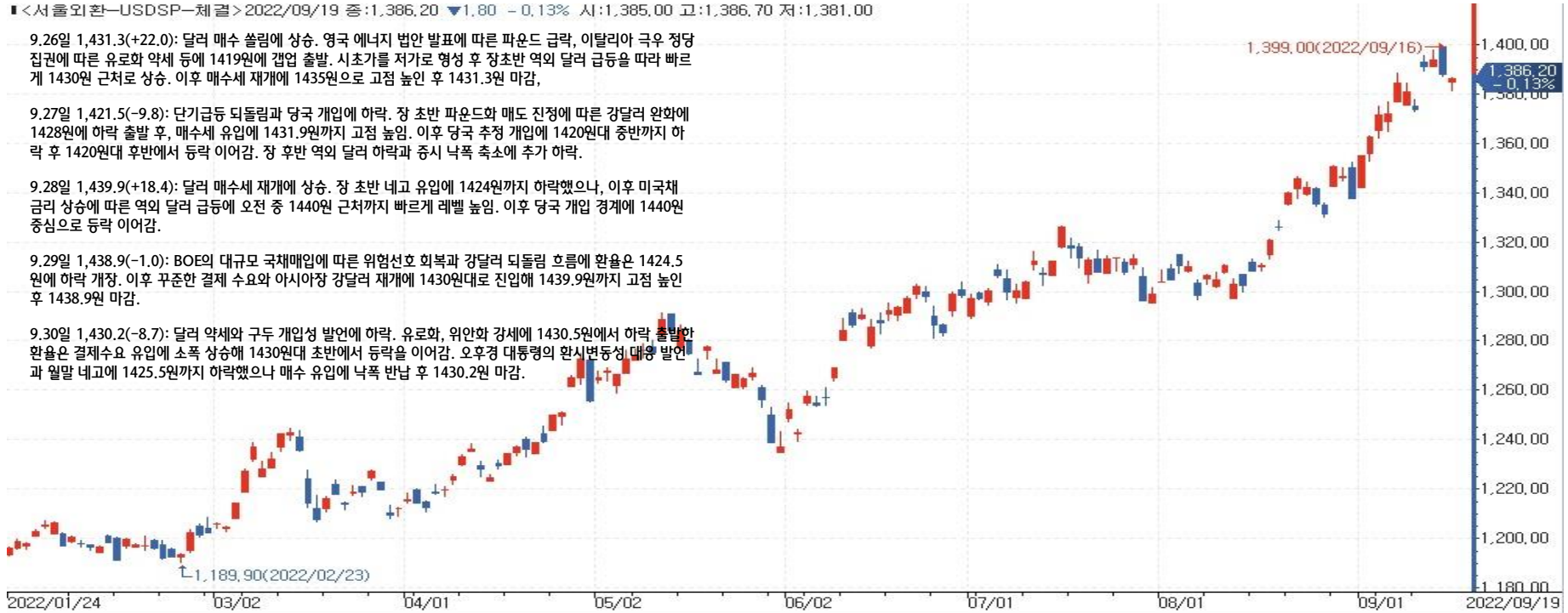
9.26일 1,431.3(+22.0): 달러 매수 쏠림에 상승. 영국 에너지 법안 발표에 따른 파운드 급락, 이탈리아 극우 정당 집권에 따른 유로화 약세 등에 1419원에 갭업 출발. 시초가를 저가로 형성 후 장 초반 역외 달러 급등을 따라 빠르게 1430원 근처로 상승. 이후 매수세 재개에 1435원으로 고점 높인 후 1431.3원 마감.

9.27일 1,421.5(-9.8): 단기급등 되돌림과 당국 개입에 하락. 장 초반 파운드와 매도 진정에 따른 강달러 완화에 1428원에 하락 출발 후, 매수세 유입에 1431.9원까지 고점 높임. 이후 당국 추정 개입에 1420원대 증반까지 하락 후 1420원대 후반에서 등락 이어감. 장 후반 역외 달러 하락과 증시 낙폭 축소에 추가 하락.

9.28일 1,439.9(+18.4): 달러 매수세 재개에 상승. 장 초반 네고 유입에 1424원까지 하락했으나, 이후 미국채 금리 상승에 따른 역외 달러 급등에 오전 중 1440원 근처까지 빠르게 레벨 높임. 이후 당국 개입 경계에 1440원 중심으로 등락 이어감.

9.29일 1,438.9(-1.0): BOE의 대규모 국채매입에 따른 위험선호 회복과 강달러 되돌림 흐름에 환율은 1424.5원에 하락 개장. 이후 꾸준한 결제 수요와 아시아장 강달러 재개에 1430원대로 진입해 1439.9원까지 고점 높인 후 1438.9원 마감.

9.30일 1,430.2(-8.7): 달러 약세와 구두 개입성 발언에 하락. 유로화, 위안화 강세에 1430.5원에서 하락 출발한 환율은 결제수요 유입에 소폭 상승해 1430원대 초반에서 등락을 이어감. 오후경 대통령의 환시변동성 대응 발언과 월말 네고에 1425.5원까지 하락했으나 매수 유입에 낙폭 반납 후 1430.2원 마감.



## 주간 달러/원 동향

- 주초, 달러-원은 달러 매수 쏠림에 급등. 영국 에너지 법안 발표에 따른 파운드 급락, 이탈리아 극우 정당 집권에 따른 유로화 약세에 달러가 급등하자 환율은 1430원대로 상승. 이후 단기 급등 되돌림 속 1420원대로 상승폭 일부 반납.
- 주 중반, 달러-원은 달러 매수세 재개에 상승. 미 국채금리 상승과 역외 달러 매수세를 따라 달러 롱시리 확대되며 환율은 1440원 근처로 급등함.
- 주 후반, 달러-원은 기술적 과매수 인식에 따른 되돌림과 BOE 국채 매입에 따른 위험선호 회복에 하락. 한국 WGBI 관찰대상국 편입 소식과 대통령의 환시변동성 대응 발표 또한 환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함.

## 달러/원 전망

- 금주 달러-원은 6개월 연속 무역 적자 등 결제 우위 수급, 여전한 롱시리 등에 지지력 보이겠으나, 급등 되돌림, 영국발 금융불안 완화 등에 상승 탄력 둔화될 것으로 예상. 최근 당국의 수급 개선책 발표에도 달러-원 하락 효과는 제한적이었으나, 점차 효과를 내면서 수급 측면의 매수 쏠림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임.
- 다만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7차 핵실험 가능성 등 지정학 리스크 부상은 환율 하단에 지지력 제공할 듯. 또한 OPEC+ 회의 감산 가능성에 따른 유가 상승과 인플레이 압력 고조 또한 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금주 후반 발표될 9월 미국 비농업 고용지표는 증가폭이 20년 말 이후 가장 적을 것으로 보이나, 예상 상회할 경우 강달러 재개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판단.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	------	------	------	------

1,419.00	1,442.20	1,419.00	1,430.20	+20.90
----------	----------	----------	----------	--------

### 예상거래범위

1,420원 ~ 1,445원

# 엔·유로화 동향 [9/26~9/30]



## 유로화 동향

- 주초, 영국 감세안 조치 발표 등에 따른 파운드 급락이 달러화의 초강세 견인 속에 이탈리아 우파 연합의 승리 확정적 소식에 따른 정치 리스크 확대 등으로 약세 출발. 이어 BOE의 적극적 구두 개입에도 이탈리아 재정건전성 우려 등 유로존 전반의 경기 불확실성 요인 확대 등으로 약세 흐름 지속
- 중반 들어, BOE의 전격적 국채 매입 안정화 조치 발표로 달러인덱스 약세 전환 속 유로 강세 전환했으나, 연준 매파적 스탠스 지속 등이 강세를 제한
- 후반 들어, 영국발 금융시장 안정화 기대 등에 따른 영향 속 독일의 물가 상승 압력 부각 등에 따른 ECB의 긴축 강화 기대 등으로 유로화는 강세 흐름 이어간 가운데 주 후반, 미국 PCE가 시장 예상치를 다시 웃돌며 미국 인플레이션 압력이 꺾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영국의 감세안이 철회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에 파운드화 강세 영향과 유로존의 물가 압력에 따른 추가 자이언트 금리인상 기대 등으로 상승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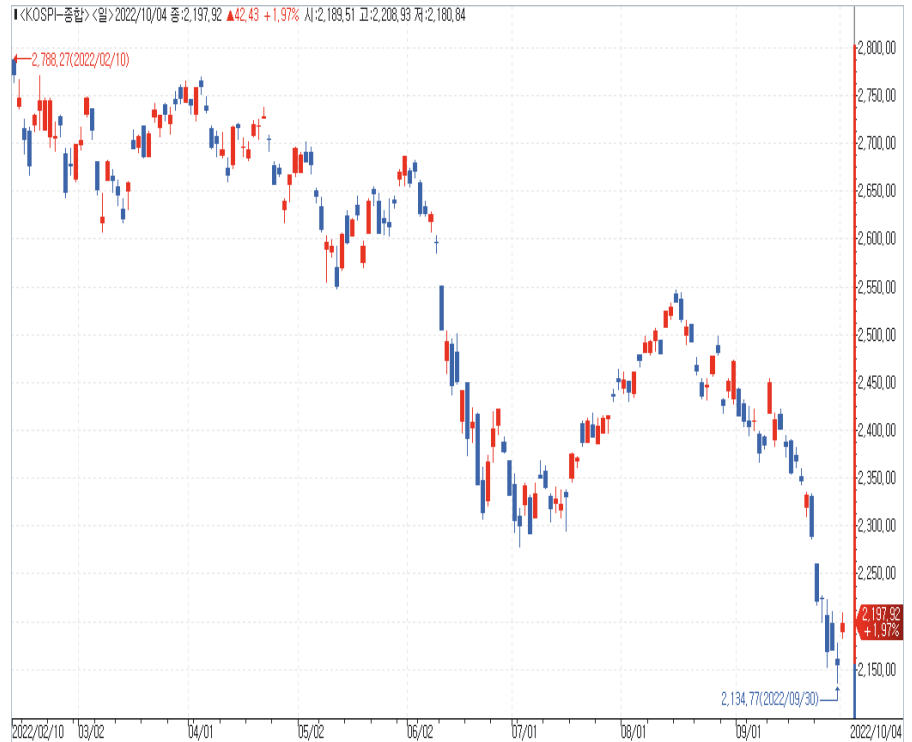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0.9690	0.9853	0.9535	0.9802	+0.011

## 엔화 동향

- 주초, BOJ의 강도높은 개입 효과가 약화된 가운데 영국발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초강달러 영향 등으로 약세 출발 후 흐름이 다소 이어지는 형국
- 중반 들어, 영국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 등으로 달러 약세 전환한 가운데 일본 외환당국에 대한 개입 경계감이 다소 강화되며 엔화의 강세 전환에 영향
- 후반 들어, BOJ의 매수개입 효과 소멸 흐름 속 초완화정책 고수에 대한 시장 인식으로 재차 엔화의 약세 흐름 전환. 이어 주 후반, 영국의 감세안 철회 가능성에 달려 강세가 다소 진정되는 분위기를 보인 가운데 엔화는 당국 개입에 대한 경계감이 여전했지만 미 PCE 상승 속 국채수익률 상승 추세 등에 따른 기초적 달러 강세 영향 등으로 약세 흐름 이어지며 마감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43.3	144.9	143.2	144.8	+1.44

# 국고채 금리 및 주간 증시 동향 (9/26~9/30)



## 주간 국고채금리 동향

- 주 초반, 영국 감세안과 국채 발행계획 등이 공급 관련 이슈 속에 한은 총재의 '빅스텝' 을 포함한 금리 인상 기조 언급 등으로 4.5%대 금리 수준을 상향하며 출발. 이어 불안한 대외 상황에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채선물을 대량으로 매수 하면서 2010년 9월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
- 중반 들어, 영국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글로벌 금리 상승에 동조되다 한은과 기재부의 국채시장 공동 개입에 따라 국고채 시장의 약세가 일부 완화되는 국면
- 후반 들어, 한국은행이 국고채 단순 매입을 실시한 가운데 영국 중앙은행이 영국 국채 매입을 단행한 영향 반영 등으로 하락 전환하며 마감

## 주간 증시 동향

- 주초, 연준 자이언트 스텝 이후 경기침체 우려 확대되는 가운데 영국 정부의 감세 발표, 이탈리아 극우 정권 출범 등 유럽발 악재까지 겹치며 3%넘게 하락 출발. 이어 파운드 가치 급락 속 환율 불확실성 등에도 기술적 반등세를 나타냄
- 중반 들어, 영국 금융시장 긴축발 경기침체 우려 등이 맞물리며 하락 추세 이어진 영국
- 후반 들어, BOE의 시장 안정화 조치 등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위험선호 요인에도 인플레이션 우려 등이 복합화되며 강보합 정도의 흐름 후, 주 후반, 각국 중앙은행들의 고강도 긴축과 경기 침체 이슈가 전반적 수요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란 우려가 반영되며 하락 마감